

투수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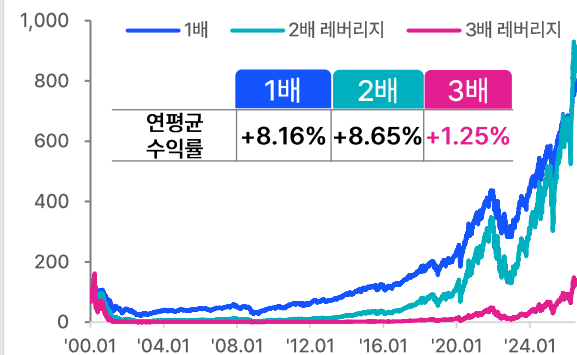
ETF컨설팅본부 ETF투자솔루션팀

꾸준하게 상승한 대표지수, 2배·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Vol 07 | 2026년 8월 첫번째 주

1 "나스닥100 1배 vs 2배 vs 3배 장기 투자 결과"

(2000.01.03=100)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2000.01.03~2026.06.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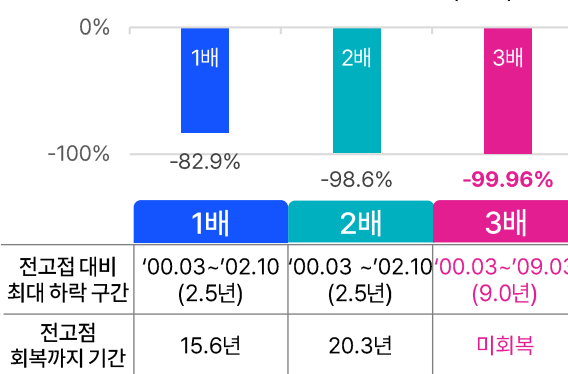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으니까, 2배나 3배로 오래 들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다. 지수가 오르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곁에서 오래 들고 있는 쪽이 유리해 보이니까요. 2000년 1월 3일~2026년 6월 30일 기간 나스닥 100 지수의 1배, 2배, 3배 레버리지 성과를 비교해보았습니다. 2배 레버리지의 성과는 26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1배 지수의 누적 성과를 넘었으며*, 3배 레버리지는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가 1배 지수의 누적성과를 상회한 것은 분석 구간 26년 중 최근 일부기간에 한정.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에는 1배 지수가 2배 레버리지를 상회

2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은 회복기간입니다"

나스닥100 1배 vs 2배 vs 3배 전고점 대비 최대낙폭(MDD) 비교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2026.06.30 기준

이러한 차이는 하락구간에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의 경우, 1배 -82.9%, 2배 -98.6%, 3배 -99.96%였습니다. 전고점을 되찾는 데 1배는 15.6년, 2배는 20.3년이 걸렸고, 3배는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2000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레버리지의 경우 '일단 수익률'의 배수이므로 오르내림이 반복될 수록 손실이 누적됩니다. 레버리지가 키운 것은 기대수익뿐 아니라 전고점 아래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옵니다"

하락 국면 (*나스닥 100 지수 기준)	1배 MDD*	2배 MDD	3배 MDD
2008 금융위기 (2007.10.31~2008.11.20)	-53.7%	-81.8%	-94.0%
2018 미-중무역분쟁 (2018.08.29~2018.12.24)	-23.0%	-42.1%	-57.6%
2020 코로나 (2020.02.19~2020.03.20)	-28.0%	-51.6%	-69.8%
2022 긴축 (2021.11.19~2022.12.28)	-35.6%	-62.9%	-80.9%
2025 미국 관세발표 (2025.02.19~2025.04.08)	-22.9%	-41.6%	-56.4%

* MDD(Maximum Drawdown): 전 고점 대비 최대 낙폭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2026.06.30 기준

2000년 초 닷컴 버블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20여 년간 나스닥100은 20% 이상 하락한 국면을 다섯차례나 겪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앞으로도 예고없이 찾아오며, 레버리지 배수가 높을수록 손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레버리지는 투자 구조상 장기간 보유할 경우 기대수익률과 실제 성과가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변동성으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보다 1배 지수투자가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투자자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상품 간 우열을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본 자료의 1배 2배 3배 성과는 나스닥100 지수 증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실제 ETF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산출 기준]

- * 2배 3배는 매 거래일 지수 수익률에 배수를 적용해 누적인 방식으로, 장기 누적수익률의 2배 3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운용보수 및 파생상품 비용, 차입금리, 추적오차, 세금을 모두 0%로 가정하였으며, 실제 투자 시 결과는 이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재무자가 반영되지 않은 Nasdaq 100 Price Return index 기준입니다. * 분석 구간 : 2000.01.03~2026.06.30 * 지수데이터 출처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 하락 국면별 낙폭은 각 국면의 지수 고점일로부터 저점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상기 결과는 특정 시작 시점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투자 기간에 대한 보편적 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지수 일간 변동률의 배수를 추종하므로, 2거래일 이상 보유 시 누적수익률이 기초지수 누적수익률의 배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레버리지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기간 수익률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S·아마존 실적발표, 견조한 AI 수요 확인

• MS·아마존, 클라우드가 실적 견인:

MS의 2분기 Azure(기업용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 Azure 연간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 돌파. 아마존도 AWS 클라우드 매출이 37% 늘어난 422억 달러로 18개 분기만에 최고 성장을 기록하며 클라우드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 재확인



*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한 금액 대비 벌어들인 수익의 비율

• AI 투자 ROI* 우려, 빅테크 실적발표 소화하며 완화:

그동안 시장에서는 빅테크가 쏟아붓는 막대한 AI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 이번 분기에는 구글 클라우드에 이어 MS Azure, 아마존 AWS까지 **주요 클라우드 3사 성장률이 나란히 예상치를 상회하며 AI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

* 자료 : Microsoft, Amazon, Alphabet 각 사 실적 발표 자료(2026.07.30)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CUS 1 Kodex 미국나스닥100 ETF(379810)

-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미국 대표지수 ETF
- 시총 1위 종목이 바뀌어도 지수가 이를 자동반영, 종목 선택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 투자 가능

* 합성 총보수 : 연 0.1003% (운용 0.0001%, AP 0.001%, 신탁 0.005%, 사무 0.0001%, 기타비용 0.0941%), 직전 회계연도기준 증권거래비용 0.0558%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AI Agent 대중화로 '고성능 CPU' 수요 증가 주목

• 에이전트 AI, 연산 수요 구조를 바꾼다:

AI 에이전트는 답변 생성에 그치지 않고 도구를 호출하며 작업을 이어가는 구조로, 이를 관리하는 CPU 수요가 함께 확대. **TrendForce에 따르면 현재 1:4~1:8인 데이터센터 CPU:GPU 비율이 1:1~1:2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ARM은 1GW당 필요한 CPU 코어 수가 현재보다 4배 늘 것으로 추산

* 출처 : TrendForce(2026.04.08)



• 인텔·AMD 실적으로 확인된 CPU 수요:

인텔 2분기 매출은 161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최대 성장을 기록, 데이터센터·AI 부분은 59% 성장. AMD도 서버용 에픽 CPU 매출이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GPU에 가려졌던 CPU 수요가 실적으로 확인되는 흐름**

* 자료 : Intel, AMD 각 사 실적 발표 자료(2026.04, 2026.05)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4일 신규상장

FOCUS 2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0225V0)

- AI 에이전트 시대 'CPU 슈퍼사이클' 전환 가속화되며 차세대 CPU 플랫폼 경쟁 본격화 예상
- AMD, ARM, 인텔 등 AI 데이터센터 선두 CPU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 총보수 : 연 0.550% (운용 0.5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자료는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